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차 선 근

대순종교문화연구소 · 연구위원

- | | |
|--------------------|---------------------|
| I. 여는 글 | III. 수행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 |
| II.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 개괄 | IV. 닫는 글 |

I. 여는 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순진리회의 역사는 144년째이다.¹⁾ 그에 비해 종교학에 기반하여 대순진리회의 종교사상을 학문적으로 탐구한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대순사상 연구의 효시는 장병길이 저술한 『증산종교사상』(1976)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한국 종교학의 선구자였던 그는 1989년에 이 저서를 수정·보완하여 『대순종교사상』을 발간하였고, 이로부터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

대순사상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이다. 종교적 실천을 의미하는 수행에 대한 연구가 종교연구에 있어서 지니는 중요도는 매우 크다. 그간 대순진리

1) 이것은 대순진리회의 교조이신 강증산께서 탄강하신지 144년째가 되는 해[大巡144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회의 수행을 다룬 연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어느 종교학자가 대순진리회의 수행에 대한 논문들을 두루 살펴보고 특히 수행과 관련이 깊은 몇몇 의례²⁾에 대해, “비슷비슷해서 외부 연구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³⁾ 사실, 의례를 포함하는 수행 관련 연구들은 대순사상의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그 양이 작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연구들 대부분은 『대순종교사상』이 구축해놓은 체계 속에서 수련·기도·공부, 성경신(誠敬信), 훈회(訓誨)⁴⁾, 수칙(守則)⁵⁾, 의례의 형식 등에 대한 기술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별다른 주장이 없이 유사한 내용들을 재생산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정보 전달식 연구들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특징 등 실질적 내용을 전달시켜 발전적이고 새로운 연구를 개발하게 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다 비슷비슷하며 별 도움은 안 된다는 한 외부 연구자의 평가는, 수행·의례의 외형적 모습만을 반복적으로 기술해왔던 그간의 연구 태도들 탓이 크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새로운 문제의식이나 연구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설명에 치우친 과거 연구들과 차별되지 않는 기술을 반복하는 데에

2) 의례는 소통체계로서의 의례, 갱신체계로서의 의례, 수련체계로서의 의례, 금기체계로서의 의례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모든 의례가 수행과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의례는 대개 수행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문화체육부 엮음,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서울: 화산문화, 1996), pp.43-56 참조.

3)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종교연구』 73 (2013), p.162.

4) 훈회는 다음 다섯 항목을 말한다. 一.마음을 속이지 말라, 二.언덕(言德)을 잘 가지라, 三.척(慙)을 짓지 말라, 四.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五.남을 잘 되게 하라.

5) 수칙은 다음 다섯 항목을 말한다. 一.국법을 준수하며 사회도덕을 준행하여 국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여야 함, 二.삼강오륜은 음양합덕·만유조화(萬有造化) 차례(次第) 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를 애용 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써 할 것, 三.무자기(無自欺)는 도인의 옥조(玉條)니, 양심을 속임과 흑세무민하는 언행과 비리괴러(非理乖戾)를 엄금함, 四.언동으로써 남의 척(慙)을 짓지 말며,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을 모름을 개의치 말 것, 五.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그치고 있다면, 그러한 담보 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지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관점과 방법,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연구 맵(research map)을 만들어보는 일일 것이다.

몇 해 전, 이정원은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2009)에서 2008년까지의 지난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양상과 향후 과제를 살핀 바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보다 많은 연구자 양성이 필요하며, 대순사상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고, 학문적인 방법론 개발도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가 두 가지 방향 즉 중단의 교리·사상을 탐구하는 대내적 연구와 대순사상을 인류 보편의 문제(사회적 책임 문제·인권문제·환경문제)에 적용시키는 대외적 연구로 나뉘어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⁶⁾ 그의 논문은 대순사상 연구 전반에 대한 첫 번째 포괄적 진단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거시적 진단과 함께 세부적 진단 역시 눈에 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차선근이 기술한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 (I)」(2013)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대순사상의 연구 분야 중 하나인 대순진리회 상제관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관점 제시와 아젠다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⁷⁾

대순진리회의 수행 연구 경향을 살피고자 하는 이 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다. 이 글은 향후 전개될 대순진리회 수행 관련 연구들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에 대한 지난 연구들을 종합하고 그 경향을 진단하며(II장),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조명한 뒤 새로운 연구 관점 및 방향, 과제를 마련해보려고 한다(III장).

이러한 작업은 대순사상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로 하여금 대순진리회 수행 전반에 대한 연구들을 쉽게 개괄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어떤

6) 이정원,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대순사상논총』 20 (2009).

7)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I)-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차원의 수행 연구들이 요청되고 있는지 살펴계 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대순사상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 역시 어떠한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 개괄

대순진리회 수행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는 장병길이 1976년에 발간한 『증산종교사상』에 수록되어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수행을 ‘종교행위’라는 범주로 설명하면서, 그 항목을 ‘I. 윤리계율, II. 수도공부, III. 의례, IV. 주문, V. 포덕’으로 나누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I. 윤리계율’ 편에서는 심령신대(心靈神臺)와 인존(人尊)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높이고 서로 상극하지 않으며 죄와 책(慼: 남이 나에게 갖는 원한)을 짓지 않고 하늘도 두려워하는 일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남존여비나 반상의 구별을 따지지 않으며 상생을 도모하는 새 시대의 윤리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것, 성경신이 계율의 기초라는 것을 차례로 기술하고 있고, ‘II. 수도공부’ 편에서는 일심이 안심·안신이며 무자기(無自欺)인데 그 일심을 진심에 두는 것이 수련이라는 것, 성경신(誠敬信)과 훈회의 실천이 수행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III. 의례’ 편에서는 상제의 천지공사에 보이는 의례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상제께 올리는 심고, 식고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IV. 주문’ 편에서는 상제께서 공사를 보실 때 사용하신 여러 종류의 주문들을 언급하고 있고, ‘V. 포덕’ 편에서는 상제께서 포덕으로써 종교 조직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⁸⁾ 장병길의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수행을 포함하여 대순사상 전반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라는 점, 특히

8) 장병길, 『증산종교사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6), pp.135-177.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훈회와 성경신, 인존, 일심, 안심, 진심, 안신, 무자기, 포덕, 각종 의례 등 다양한 항목들을 수행 연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1986년에 출판된 『대순회보』 4호의 3면에는 「수도 공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것이 수행에 대한 두 번째 연구 기술이다. 이 기사의 작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글의 앞부분에 일반적인 종교수행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대순진리회에서 학술적 교리 탐구를 시도하고 있었던 장병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기사는 『대순진리회요람』이 “수도는 공부(工夫)와 수련(修鍊)과 평일기도와 주일기도로 구분한다.”고 명시한 바에 따라⁹⁾ 수도를 ‘수련’, ‘공부’, ‘기도’로 나누고 있다. ‘수련’ 항목에서는 자신의 탁한 현재 심성(心性)과 기질을 닦아서 본시 본원의 맑고 깨끗한 심성과 기질로 환원시키는 수심연성(修心鍊性)과 세기연질(洗氣鍊質)¹⁰⁾하는 단련을 수련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속세를 떠난 산 속이 아니라 본부와 지방회관, 포덕소, 가정에서 수련을 할 수 있고, 법좌(法座)의 자세로 앉아 호흡을 단전에 돌리며 다시 등으로 돌렸다가 코를 통해서 내쉬고, 의식은 상제를 영원토록 모신다고 하는 데 집중시키면서 태을주를 계속 송독하는 것이 수련의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공부’ 항목에서는 시학공부(侍學工夫)가 마음과 몸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는 공부, 시법공부(侍法工夫)가 상제를 가까이서 받들어 모시는 법리에 대한 공부라고 규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 기술하면서, 법학공부(法學工夫)·청학공부(靑學工夫)의 방법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고 있다. ‘기도’ 항목에서는 상제를 받드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사, 공양 혹은 예배에 가까운 의례 형태를 기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 및 장소,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도 시간은 그 나름의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하지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¹¹⁾

9)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p.18.

10) 『대순진리회요람』에는 ‘修心鍊性’이 아니라 ‘修心煉性’, ‘洗氣鍊質’이 아니라 ‘洗氣煉質’이라 표기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요람』, p.9.

11) 『대순회보』 4 (1986), p.3

장병길은 1989년에 『대순진리강화Ⅱ』(『대순진리진수』)¹²⁾의 ‘제삼편 종교행위’에서 수행을 ‘의례, 계와 율, 주문, 수도 공부’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 내용은 평천하(平天下), 치국가[治國], 제가족[齊家], 수자기[修身], 정일심[正心]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는 점, 교법에 해당하는 것이 안심·안신·경천·수도 및 성경신이라는 점 등인데, 대체로 『증산종교사상』과 유사하게 되어있다.¹³⁾ 이 해에 장병길은 『증산종교사상』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대순종교사상』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출간하였다. 그는 수행 부분을 『증산종교사상』과 마찬가지로 ‘종교행위’에서 다루면서 목차를 ‘1.의례’, ‘2.수도’, ‘3.주문’, ‘4.포덕’, ‘5.계율과 윤리도덕’으로 다시 조정하였다.¹⁴⁾ ‘1.의례’편에서는 기존의 내용에 입회 의식, 기도 의식, 치성 의식, 일반 행사 및 혼상제례(婚喪祭禮) 의식의 절차를 대폭 보강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치성 의례에서의 배례가 도교의 우보(牛步) 형태를 띤다고 소개한 것이다.¹⁵⁾ 최근 들어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상호 관련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장병길의 이 기술은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수행 방법에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최초로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2.공부’편에서는 수련과 시학·시법·법학·칭학공부, 기도의 개요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3.주문’편에서는 오주(五呪)를 비롯하여 현재 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주문들을 소개하고, 주문의 효능은 대체로 소원성취에 있다는 사실, 주문의 뜻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데에 그 신비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이하게 태을주¹⁶⁾에 대한 글자 풀이를 시도하고 있다. 즉, 태을주에서 ‘치(哆)’와 ‘야(哪)’는 바라는 것을 크게 말하는 소리이고, ‘함(喊)’은 큰 소리로 말씀을 올린다는 의미를 담은 글자, ‘리(哩)’는 어조(語調)를 돕는 기능을 하는 글

12) 처음 발간되었을 때는 『大巡眞理眞髓』였으나 곧 『대순진리강화Ⅱ』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3) 장병길, 『대순진리강화Ⅱ』(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p.122-123, pp.234-255.

14) 장병길, 『대순종교사상』(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p.154-211.

15)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p.164; 윤승용 역시 치성을 드릴 때의 배례가 우보 형태라는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다. 윤승용, 「신종교 의례의 현황과 특성」, 『한국종교』 23 (1998), p.418.

16) 태을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吽(嚕)吽(嚕) 太乙天上元君 吽哩哪(哪)來 吽哩喊哩 娑婆阿”

자이며, 이 주문의 핵심은 일체중생의 성덕(性德)을 일컫는 ‘흙(咄)’과 ‘아(啊)’ 두 글자에 있는데, ‘흙’은 제천(諸天)의 모든 종자(種子)를 뜻하며 티끌을 물리치고 일념을 섭취·저장함을 상징하고, ‘아’는 시작(權與)·일심을 널리 펼침[舒遍]·법계에 흘러 들어감[漚輪法界]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태을주는 태을천상원군이라는 신적 존재에게 “스스로 깨달아 앎”과 “일념을 아로새길 수 있게 될 것”을 발원하는 주문이라고 결론짓는다. ‘4.포덕’편에서는 포덕이 포교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남에게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득(得)’을 나누어가지며 덕을 베푸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5.계율과 윤리도덕’편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여러 도덕과 윤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훈화와 수칙, 성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장병길의 수행 연구 업적을 소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러한 일련의 작업으로써 공부와 수련, 치성, 기도 같은 각종 의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포덕이나 교화, 훈화, 수칙, 사강령(四綱領: 安心·安身·敬天·修道)과 삼요체(三要諦: 誠敬信) 등 실제 수행과 관련된 사상 및 행동 양식을 두루 아울러 수행 연구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연구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수행 연구의 대상을 일일이 지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92년에는 대순진리회 종단 내부의 연구위원들이 개별 저자로 참여한 『대순논집』에 수행과 관련된 논문 다섯 개가 발표되었다.¹⁷⁾ 먼저 황현하는 「마음의 본성회복(本性恢復)에로 가는 길」에서 마음과 복마(伏魔)의 발동에 대해 고찰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박용철은 「정심에 대한 유형적 고찰」에서 성경신에 의한 끊임없는 수도로써 정심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심의 의미와 『전경』에 제시된 다양한 정심 사례들을 정리했다. 박팽런은 「정신개벽

17) 대순사상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최초 논문 모음집은 1983년에 간행된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이다. 여기에는 수행에 대한 논고가 보이지 않는다. 『대순논집』은 대순진리회에서 두 번째로 발간한 논문집이다.

의 실천원리론」에서 수심연성과 세기연질, 면이수지(勉而修之), 성지우성(誠之又誠)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도하면서 훈회 다섯 항목을 수행의 대표적인 실천 방법이라 하여 하나씩 차례로 기술하고 있다. 김홍철은 「대순진리의 실천수행원리」에서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중요한 기관¹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심의 개념을 보다 자세히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도덕을 행하고 착을 푸는 것, 보은, 해원상생, 안심·안신과 성경신이 언행 및 처사의 방법임을 언급하고 있다. 강상년은 「훈회의 실천원리」에서 훈회를 계로, 수칙을 율로 규정하고 그중 훈회에 대한 개별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¹⁹⁾ 대체로 마음의 한 양태인 정심과 일심, 그리고 생활 수행법인 훈회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이 다섯 편의 논문들은 외부 학자였던 장병길 이후 대순진리회 내부에서 시도된 최초의 수행 관련 연구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994년에는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의 설치와 함께 교수진이 구축되었고, 1996년에는 대순사상학술원이 『대순사상논총』을 펴내기 시작함으로써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20여 차례 이상 출판된 『대순사상논총』에는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연구들도 실렸는데 그 중 중요하게 보이는 몇 가지만 추려보면, 먼저 조태룡은 「신인조화를 통해 본 수도의 의미」(1997)에서 무자기(無自欺)와 포덕천하를 수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특히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의통(醫統)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⁰⁾ 김정태는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포덕·교화를 중심으로」(1998)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수행을 의미하는 3대 기본사업인 포덕·교화·수도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포덕과 교화의 정의와 목적, 방법, 의의 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²¹⁾

18) 『진경』(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4),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19) 대순진리회 연구위원회 편집, 『대순논집』(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pp.87-183.

20) 조태룡, 「신인조화를 통해 본 수도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3 (1997), pp.263-290.

21) 김정태,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포덕·교화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 (1998), pp.483-539.



〈그림 1〉 중국도장 본전 2층 내부에 그려져 있는 주문 공부의 여섯 단계²²⁾

박용철의 「도통진경에 대한 이해」(1998)는 대순진리회의 주문 공부 중에 벌어지는 실제 현상에 나름의 설명을 붙인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도장 본전 2층 내부에는 주문 공부 시에 벌어지는 상황을 여섯 폭의 그림으로 그려두고 있는데, 박용철은 그 첫 단계인 ‘봉축(奉祝)’이 향을 피운 후 법좌를 하고 주문을 봉송하면서 상제께 영통(靈通)에 이를 수 있도록 간청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또 두 번째 단계인 ‘번뇌(煩惱)’는 잡념을 제거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며, 세 번째 단계인 ‘신고(身苦)’는 수련자의 몸에 있는 탁하고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완전한 육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네 번

22)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承負)와 척(慼)을 중심으로」, 『2014東亞道文化研討會』(북경대학교 발표집, 2014), p.350.

째 단계인 ‘난입(亂入)’은 유희이나 공포를 통해 인간의 그릇을 측정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단계인 ‘취정(聚精)’은 심신이 편안하여 무아(無我)의 경지로 들어서면서 무한한 기운이 모이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인 ‘개안(開眼)’은 천지인 삼계와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사실과 이치에 통달하여 무소부지(無所不知)·무소불능(無所不能)하는 영통의 경지에 드는 것이라고 한다.²³⁾

1998년에는 대진대학교 대순종학 교재연구회가 교양필수과목 교재인 『대순사상의 이해』를 발간하였는데, ‘제5장 대순사상의 실천체계’ 영역에서 대순진리회의 수행을 ‘Ⅰ.포덕’, ‘Ⅱ.교화’, ‘Ⅲ.수도’, ‘Ⅳ.의식과 예절’, ‘Ⅴ.훈회와 수칙’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순종교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대순진리회에서의 구도 과정을 묘사한 심우도(尋牛圖), 공부·기도 등 각종 의식과 치성 의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도장 참배 예절, 훈회와 수칙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²⁴⁾

1999년에는 윤재근이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에서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도, 수련, 공부를 거론하면서 공부와 수강, 연수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두고 있다. 특히 그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들이 현장중심의 종교수행능력에 맞추어 배양될 뿐 대순종학과 졸업생들이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두 형태를 병립시키는 종교지도자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2000년에는 이경원이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에서, 2001년에는 김석한이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주체에 관한 연구」에서, 또 그 해에 이경원이 「성·경·신과 대순수양론 연구」에서, 2005년에는 이재호가 「대순진리회 수행의 이론과 실제」에서 수행의 배경이 되는 상제관 및 인간관을 기술하고, 사강령과 삼요체, 기도와 기도 시간의 의미, 공부

23) 박용철, 「도통진경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5 (1998), pp.370-371.

24)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pp.207-238.

25)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8 (1999), pp.184-185, pp.193-194.

에 대해서 정리해두고 있다.²⁶⁾ 2007년에는 고병철이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에서 대순진리회의 실천체계를 포덕, 교화, 수도 공부, 의례로 구분하고 각각 설명하였다.²⁷⁾ 또 이 해에 진정애는 「기성종교와 대순진리회의 심론 비교 연구」에서 대순진리회는 마음을 신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규정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기술하였고,²⁸⁾ 윤기봉은 「대순사상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에서 성경신을 마음을 닦는 방법이라 언급하였다.²⁹⁾

2008년이 되면 이경원이 「대순진리회 기도의례의 종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도와 송주(誦呪), 법배(法拜)의 상징과 의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특히 법배는 인존사상을 상징하는 것이며, 송주와 기도는 신의 임재(臨在)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신과 인간이 조화(調化)된 참된 인존의 경지를 염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³⁰⁾ 설명(explanation) 영역에서 이해와 해석(interpretation)의 영역으로 좀 더 나아가는 수행 연구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대략 이 무렵부터이다.³¹⁾

2009년에는 이경원이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에서 대순진리회 치성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³²⁾ 같은 해에 진정애 역시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였고,³³⁾ 한수진은 「대순진리회의 종교

26) 이경원,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8 (2000); 김석한,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주체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5 (2001); 이경원, 「성·경·신과 대순수양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12 (2001); 이재호, 「대순진리회 수행의 이론과 실제」, 『신종교연구』 13 (2005).

27)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 종교교단 연구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8) 진정애, 「기성종교와 대순진리회의 심론 비교 연구」, 『대순회보』 72 (2007).

29) 윤기봉, 「대순사상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7).

30) 이경원, 「대순진리회 기도의례의 종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19 (2008).

31) 종교학에서 특정 종교를 연구할 때 그 종교를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인지 하는 논쟁이 있어왔지만, 결국 설명과 해석은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돈구, 「현대 종교이론의 쟁점」, 『종교학연구』 11 (1992), pp.96-98 참조.

32)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20 (2009).

33) 진정애,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 『대순회보』 91 (2009).

적 규범에 관한 연구」에서 수행을 위한 종교적 규범인 훈회와 수칙, 신조에 대해 설명하였다.³⁴⁾

2011년에는 강돈구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에서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 도장과 지방에서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살폈는데, 특히 1991년 말에 대순진리회가 120여 명의 도인들을 뽑아 개안을 위한 특별수련을 시켰던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³⁵⁾ 이 해에 차선근은 「근대 한국의 신선관념 변용」에서 전통적인 신선과 대순진리회 신선(지상신선)의 개념 및 수행법을 비교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³⁶⁾ 역시 같은 해, 김의성은 「대순사상의 윤리관 연구」에서 마음과 윤리적 실천을 담은 훈회에 대해 설명하였고,³⁷⁾ 조용기는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에서 정심과 일심, 성경신, 훈회 및 주문, 포덕과 교화에 대해 각 항목별로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³⁸⁾

2012년에는 차선근이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에서 동학과 대순진리회의 수행을 비교하였다. 그는 그 논문에서 동학의 수행을 내재적 하늘관을 기초로 하는 기화(氣化) 개념으로, 대순진리회의 수행을 초월적 하늘관을 기초로 하는 덕화(德化) 개념으로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³⁹⁾ 또 그 해에 차선근은 「대순진리회의 현재와 미래-포덕을 중심으로」에서 수행과 포덕이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 기술하고 포덕의 방식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였다.⁴⁰⁾ 역시 같은 해, 윤기봉은 「대순사상의 도통관에 있어서 실천수행의 문제」에서 수도 방법에 해당하는 기도와 수련, 공부, 포덕, 교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⁴¹⁾ 백경연은 「대순진리회 교화에 관한 연구」에서 교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⁴²⁾

34) 한수진,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규범에 관한 연구」(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5)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36)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 『종교연구』 62 (2011).

37) 김의성, 「대순사상의 윤리관 연구」(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38) 조용기,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39)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 『종교연구』 69 (2012).

40)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현재와 미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엮음, 『한국 종교의 확산 전략』(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41) 윤기봉, 「대순사상의 도통관에 있어서 실천수행의 문제」, 『종교교육학연구』 38 (2012).

42) 백경연, 「대순진리회 교화에 관한 연구」(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2013년에는 이경원이 『대순종학원론』을 출판하여 기도와 공부, 수련, 치성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였다.⁴³⁾ 그 해 강돈구는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에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실제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 가정과 포덕소, 회관, 도장에서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장소별로 살폈다.⁴⁴⁾ 또 김영주는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에서, 인간의 욕망이 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경신을 다하는 수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했고,⁴⁵⁾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대순진리회 마음공부의 자세와 전형을 성경신 및 기도, 수련, 공부, 포덕, 교화라고 하면서 그 각각을 소개하였다.⁴⁶⁾

2014년에도 여름까지 대순진리회 수행에 관련된 연구는 세 편이 발표되었다. 먼저 박인규는 「한국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 주문의 비교 연구」에서 불교와 대순진리회 주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보고 있으며,⁴⁷⁾ 정지윤은 「대순진리회 수행의 실제」에서 이제까지의 수행 연구가 기도, 수련, 공부, 사강령과 삼요체를 중심으로 고찰되었을 뿐, 포덕과 교화·훈회·수칙이 수행의 중요한 유형적 방법임이 강조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⁸⁾ 또 차선근은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에서 『태평경』의 핵심 종교윤리인 승부(承負: 조상의 허물을 후손이 이어받아 재앙을 입음)와 대순진리회의 척 윤리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⁴⁹⁾

43) 이경원, 『대순종학원론』(서울: 문사철, 2013), pp.209-269.

44)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참조.

45) 김영주,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 18 (2012).

46)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43 (2013).

47) 박인규, 「한국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 주문의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48) 정지윤, 「대순진리회 수행의 실제」, 『신종교연구』 30 (2014).

49)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承負)와 척(慙)을 중심으로」, 『2014東亞道文化研討會』(북경대학교 발표집, 2014).

Ⅲ. 수행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

1. 수행 연구의 문제점

전 장에서 대순진리회의 수행 관련 기술들 가운데 중요한 40개를 검토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수행 관련 연구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문제의식이나 연구 대상, 형식, 방법, 내용이 1989년에 장병길이 『대순종교사상』에서 설정하여 놓았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타 종교들과의 비교연구 등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이면의 구조나 상징,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원류를 추적하고 고유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절대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양상만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고, 그러한 작업은 이미 이전에 누차 반복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저마다의 들뜬 목소리를 내기에만 바빠 보인다. 수행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문제의식의 개발이 없이 중복된 연구들이 무의미하게 양산되고 그러한 연구 풍토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은 심히 우려스럽다.

둘째, 모든 연구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구자의 신앙 강요적 태도를 드러내는 결과물들이 많다. 수행 연구의 상당수는 종단 내부 연구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이들은 실제 수행현장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수행에 대한 기술을 할 때 신앙 강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학문적인 면모를 잃게 하고 연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성경신의 실천이 곧 대순진리회의 수행이 된다.”는 기술을 “성경신의 실천이 곧 대순진리회의 수행이니 성경신을 다한 수도를 해야 할 것이다.”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연구를 학술적인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여겨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종교를 연구할 때는 신앙을 배제하는 종교학적 연구 외에 자신의 신앙에 기반을 둔 신학적⁵⁰⁾ 연구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앙 강요적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⁵¹⁾

셋째, 범주 문제(category mistake)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간 대순진리회의 수행은 ‘수행’ 범주 외에도 ‘종교행위’, ‘실천체계’, ‘수양’, ‘수도’ 등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이 가운데 ‘수도’ 범주는 충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대순진리회는 교(敎) 대신 도(道) 개념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두고 있고⁵²⁾ 대순진리회 수도인들도 자신들의 수행을 수도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요람』은 수도를 공부·수련·기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또 수도는 사강령(안심·안신·경천·수도) 가운데 하나이자 3대 기본사업(포덕·교화·수도)의 하나로도 설정되어 있다.⁵³⁾ 결국 대순진리회에서 ‘수도’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는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좁은 의미로는 공부·수련·기도라고 하는 수행과 관련된 몇몇 의례들만 나타내는 한정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어도 문헌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수도’ 범주에 포덕·교화·훈회·수칙·안심·안신·경천과 같은 다양한 수행 개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연구에 있어서 어떤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 훈회와 수칙이 수행의 중요한 유형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동안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고 지적

50) 대순진리회는 ‘대순종학과(大巡宗學科)’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신학 대신 종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51) 김종서, 「현대 신종교 연구의 이론적 문제」, 철학·종교연구실 편집, 『현대 신종교의 이해』(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14 참조.

52) 박상규, 「대순진리회 조직의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엮음, 『한국 종교교단의 조직』(과주: 한국학술정보, 2013), pp.133-134.

53) 『대순진리회요람』, pp.15-18.

했던 한 연구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훈회와 수칙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이 그간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을 하였다는 것을, 단순히 지난 연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연구자의 부주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수도’라는 범주 틀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훈회와 수칙은 좁은 의미의 ‘수도’ 범주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의 ‘수도’ 범주에 스스로를 위치시킨 수행 연구들은 훈회와 수칙(혹은 포덕, 교화 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몇몇 수행 연구들이 훈회와 수칙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 비판 이전에 그 연구가 삼고 있는 ‘수도’의 범주 문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수행 연구의 범주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수행’ 외에 ‘종교행위’, ‘실천체계’, ‘수양’ 등의 용어도 있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 ‘종교행위’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만큼 그 사용 범위가 넓어 대순진리회의 행동 요소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대순진리회의 수행 즉 님아 나감으로써 단련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핵심 개념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인다. 또 ‘실천체계’는 종교학적 유형론에 입각한 용어로서, 기본적으로는 한 종교의 교리 및 사상[교리체계, 사상체계]과는 구분해서 행동과 실천을 다루겠다는 뒤르켐 방식⁵⁴⁾의 의도를 내포한다. 교리와 신앙, 도덕, 종교행동이 서로 긴밀한 관련을 지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는 종교학에서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였는데, 대체로 교리와 실천이 얽혀있는 종교전통(특히 동양 종교전통)의 경우에는⁵⁵⁾ 이러한 관점을 활용한 기술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교리와 수행이 하나의 지평에서 읽히고 또 읽

54) 뒤르켐은 종교연구에 있어서 사상 영역과 실천 영역을 구분시키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종교현상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두 범주, 즉 신앙과 의식으로 구분된다. 신앙은 생각의 상태이며 여러 표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의식이란 결정된 행동양식이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실들 사이에는 생각과 행동을 구분해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에밀 뒤르켐,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 옮김 (서울: 민영사, 1992), p.67.

55) 정제식, 「학문과 신앙-두 영역의 만남」, 『인문과학』 54 (1985), pp.197-200.

혀져야 하기 때문에, 교리체계와 수행체계를 각각 분리해서 논한다면 중복 기술을 면키 어렵게 된다. 결국 수행 연구의 범주를 표시하는 용어로 ‘수양’ 또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난 2005년 한국신종교학회가 ‘신종교와 수행’이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실시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대체로 학계에서는 ‘수행’이라는 범주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양’ 대신 ‘수행’이라는 범주 속에서 수행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넷째, 용어 선정에 신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계율’ 문제가 그 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들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고, 그 행동규범은 자신과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명칭으로 불려진다. 예컨대 벌칙을 강조하는 중국도교의 청규(淸規), 유일신 신앙까지 강조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십계(十戒), 무슬림으로서의 의무를 나타내는 이슬람교의 오주(五柱),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사회도덕 규범인 ‘계’와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강제적 행위 규범인 ‘율’을 합친 불교의 ‘계율’ 등이 그것이다.⁵⁶⁾ 이러한 용어들은 각 종교들의 특징을 담고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차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계율’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불교의 맥락에 따라 만들어진 불교의 종교용어이다. 그런데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에 있어서 수행 규범을 불교의 ‘계율’ 개념으로 소개한 사례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를 생활행동 양식, ‘율’을 벌칙규정으로 보면서 계율을 ‘수도자의 계’와 ‘일반자의 율’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⁵⁷⁾ 이러한 ‘계율’ 개념은 불교 계율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행동규범을 불교와 마찬가지로 강제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56) 불교는 도덕관념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눈다. 하나는 출가자인 승려가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이며, 다른 하나는 재가 신도나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인데, 전자는 엄격한 차원의 ‘율’이며, 후자는 덜 엄격한 차원의 ‘계’이다. 니니안 스마트,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옮김 (서울: 이학사, 2006), p.168 참조.

57) 장병길, 『증산종교사상』, p.155.; 장병길, 『대순진리강화II』, pp.242-248.

가능한 지는 의문이며, 또 대순진리회는 출가와 재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⁵⁸⁾ 속세에서의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교처럼 수도자와 일반자의 행동규범을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대순진리회의 종교규범을 불교와 동일한 맥락의 ‘계율’로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이다. 비록 간단한 한 예에 불과하지만, 수행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 설정에 있어서 그 용어의 출처와 맥락, 개념에 유의해야 함은 분명하다.

다섯째, 상징과 의미 분석을 시도한 몇몇 사례들 중에 오류들이 발견된다. 상징은 객관적으로 분석되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은 주관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이어져 사상의 왜곡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밀도 있는 신중한 연구 자세가 요청된다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행과 관련되는 의례 중 하나인 법배(法拜)의 해석 문제를 살펴보자. 법배는 오직 구천상제께만 올리는 예법인데, 양팔을 위로 올려 상악천권(上握天權)하는 모양을 취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 하습지기(下襲地氣)하는 모양을 취한 연후에 절을 하는 방식을 총 4회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배에 대해서, 상악천권과 하습지기가 인간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자신에게로 거두어 모으는 모습이라는 점을 들어 인간이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인존사상을 상징한다는 견해가 있다.⁵⁹⁾ 하지만 법배 해석 문제는 수행의 기초를 이루는 상제신앙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되어져서는 곤란하다. 위의 해석은 법배의 외형적인 몸짓만 가지고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한 인간이 우주의 최고신인 상제께 배례를 올릴 때 ‘우리 인간은 천지를 능가하는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의 몸짓을 선보인다는 것은 극경(極敬)의 예법에 어울리지 않는다. 법배를 시작할 때 시행하는 상악천권 하습지기의 몸짓은 상제 면전에서 인간이 최고임을 ‘용감하

58)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한국 신종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윤승용, 「신종교 의례의 현황과 특성」, pp.436-438 참조.

59) 이경원, 「대순진리회 기도의례의 종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p.195.

게'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상제께서 처음에 상악천권과 하습지기를 가르치실 때 그 몸짓으로 4배를 하면서 '소원을 심고하라'고 하신 점을 고려하여,⁶⁰⁾ 인간이 천지로부터 기운을 받고자 하는데 그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은 상제이시니, 결국 상제를 뵈고 예를 갖추어 천지의 기운을 내 한 몸에 받아 모시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즉 덕화를 입고자 발원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할 것이다.

물론 또 다른 여러 해석들도 가능하다. 한 예로 상악천권과 하습지가 인존을 상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인존은 사람이 천지보다 귀하다는 것에 그치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가 신봉어천(神封於天)하는 천존(天尊)시대였고 신봉어지(神封於地)하는 지존(地尊)시대였다면 이제 펼쳐질 후천세상은 신봉어인(神封於人)하는 인존의 '시대'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법배는 인존시대의 도래를 상악천권 하습지기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과거 선천에서 상제는 감추어진 신(deus otiosus)으로 존재하셨지만 이제 인존시대인 후천을 맞이하여서는 역사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최고신으로 자리하시니,⁶¹⁾ 그러한 최고신께 예를 갖추는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외에도 태을주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해설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서 기술했듯이 태을주는 '스스로 깨달아 앎'과 '일념을 아로새길 수 있게 될 것'을 발원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한 연구자의 설명이 있었지만, 불교적 색채가 깊은 이러한 해석만으로 태을주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다. 태을주에 자각(自覺)과 일념을 발원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소부지에 무소불능의 경지가 이룩된 후천에서조차도 부지런히 외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⁶²⁾ 깨달음이나 일념을 발원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지을 수 없다는 말이다. 태을주가 인

60) 『전경』, 교운 1장 37절, “그곳을 향하여 상악천권(上握天權)하고 하습지기(下襲地氣)식으로 사배하면서 마음으로 소원을 심고하라.”

61)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I)-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pp.136-139 참조.

62) 『전경』, 교운 1장 60절.

간을 살려내고 인간의 겁액을 푸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은,⁶³⁾ 태을주에 글자 풀이 그 이상의 심오한 의미와 기운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도전께서도 태을주가 무궁한 조화와 기운을 담고 있는 주문이며, 그것을 읽음으로써 기운을 받고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훈시하셨음을⁶⁴⁾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징과 의미 분석을 다룬 연구들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지니는 것 역시 일정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오류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반복 재생산될 것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연구사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오류들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순사상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길이기여 여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여 본 것이다.

2. 수행 연구의 과제들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차별되지 못한 채 동일한 기술들을 반복하고 있는 현상이나, 신앙 강요적 태도, 범주와 용어 선정 문제, 상징 및 의미 분석의 문제는 모두 극복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 외에도 담보 상태에 있는 대순진리회의 수행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수행 연구의 근거와 배경이 되는 분야의 이론 개발이다. 이를테면 심성론(心性論), 심기론(心氣論), 고통론(苦痛論), 종교윤리학(Religious Ethics), 신관(神觀), 심리학 분야의 연구가 그러한 것들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수행은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닦고[修] 연마하고[煉] 씻어내는[洗] 대상은 ‘심(心)’, ‘성(性)’, ‘기(氣)’, ‘질(質)’인데, 이들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63) 같은 책, 행록 3장 31절, 교운 1장 20절.

64) “기도주는 봉축주와 같이 축원(祝願)하는 주문이다. 소원을 비는 것이다. 태을주는 무궁한 조화의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을 받아 소원을 이루게 해 주는 주문이다.” 1990년 2월 1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서는 심성론, 심기론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동양 종교전통에서는 인간의 본성[性]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수행이론이 달라지기 때문에,⁶⁵⁾ 오랜 시간에 걸쳐 심과 성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펼쳐왔고 그로부터 많은 학파와 학설이 성립되어 유불 등 전통 종교 사상들의 심오한 발전이 가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구도 전통에서는 마음과 육체의 매개물로 기를 주목하고 심과 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예컨대 중국도교에서 장지는 심이 중심이고 기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심을 허정(虛靜)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간주하였고, 갈홍은 기가 근본이고 심은 기의 작용으로 인식하여 정기(精氣)를 기르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제시하였다가, 점차 내단학이 발전함에 따라 심과 기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마음 수련[性功]과 몸 수련[命功]을 동시에 하는 성명쌍수론(性命雙修論)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게 되었다.⁶⁶⁾ 이처럼 심과 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목표나 방법은 달리 설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수행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는 아직 심성기질(心性氣質)에 대해 다양한 담론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음은 신이 출입하는 기관이고 문호이고 도로이다.”⁶⁷⁾라는 『전경』 구절을 근거로 하여, 신은 인간의 마음에 상응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하고 훌륭한 신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고 훌륭하게 닦아야 한다는 단편적인 설명이 시도된 적은 있었지만,⁶⁸⁾ 아직까지 마음과 심령(心靈), 심성(心性), 심기(心氣)의 본질이나 작용에 대한 해석, 마음 규정과 수행 규정이 어떤 일관성과 내적 원리를 지니고 있는지,⁶⁹⁾ 닦음의 대상인

65) 안영상, 「본연지성(本然之性)·기질지성(氣質之性)-인간성의 두 측면」, 한국사상사 연구회 엮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p.171.

66) 김낙필, 「도교수행론에서의心和氣」, 『도교문화연구』 33 (2010), p.10; 신진식, 「내단학의 성명쌍수 사상의 현대적 의의」, 『도교문화연구』 27 (2007), pp.129-130 참조.

67) 『전경』,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68)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관념 변용」, p.158.

심성기질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밀도 있게 접근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심성론이나 심기론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또한 수행은 인간이 겪는 고통(suffering)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인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에 의지해왔다. 대체로 구도를 중요시하는 종교전통에서 고통은 수행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통 연구는 수행을 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유력한 분야 중 하나가 된다.⁷⁰⁾

수행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은 도덕과 윤리 규정인데, 이를 학술적으로 다룬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학 역시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훈화나 수칙, 성경신 등 다양한 윤리 규정을 소개하는 글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종교윤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 원리에 대한 탐구는 전무하다. 쉽게 예를 들자면, 종교윤리학의 관점에서는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불교와 기독교는 자신이 처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자신들의 특징을 담은 자비와 사랑 덕목을 각각 창출해내었다. 바로 그 맥락과 특징을 무시한 채 자비와 사랑을 단순 비교한다면 그것은 피상적일 뿐이라고 본다. 종교윤리학은 어떤 종교의 윤리 내용 자체보다는, 그 윤리가 만들어진 맥락이나 배경, 그리고 그 윤리를 정당화시키는 사상적 구조에 관심을 가진다.⁷¹⁾ 즉 불교에서는 자비가,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각각 핵심 윤리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맥락, 구조를 살피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69) 김방룡, 「남종선과 북종선의 관점에서 본 원불교의 마음과 수행법」, 『신종교연구』 26 (2006), pp.185-187 참조.

70) 얼마 전 필자는 대순진리회의 고통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다룬 「대순진리회에서 본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탈고하였고,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71) 류성민, 「종교와 도덕의 관계-종교윤리학 방법론의 기초」, 『종교연구』 24 (2001) 참조.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경우, 지금까지 혼회와 성경신에 대한 비슷비슷한 설명은 많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정작 혼회와 성경신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성립시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문화적 맥락이나 내적 원리에 대한 탐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천지공사와 척 개념을 종교윤리학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두 편 발표되었던 것은⁷²⁾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연구들은 수행 연구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수행 연구와 함께 발맞추어져야 할 또 다른 연구는 신관 연구이다. 강돈구는 대순진리회의 수행에 신적인 관념과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수행 연구와 함께 신관에 대한 고찰이 중요함을, 그러나 아직 신관 연구가 미진함을 지적한 바 있다.⁷³⁾ 그의 지적과 같이, 신관 연구는 수행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과의 관련성 속에서 밀도 있게 탐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심리학 분야의 연구 역시 필요한 기초 분야라 할 수 있다. 종교 현상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인간 개개인의 종교 경험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⁷⁴⁾ 대체로 동양 종교전통의 종교 경험은 수행 과정에서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것일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대순진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수행의 특성과 의미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안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행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심성론, 심기론, 고통론, 종교윤리학, 신관,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수행 연구는 그 든든한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2) 류성민, 「천지공사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3 (2014);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承負)와 척(慼)을 중심으로」.

73)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참조.

74) 종교심리학 연구 현황은 이부영, 「종교현상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pp.251-281; 강돈구, 「종교심리학의 경향과 과제」, 『종교학연구』 10 (1991) 참조.

둘째, 수행에 나타나는 제 요소들의 상징과 의미를 보다 정밀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내어야 한다. 수행 연구가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해석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징과 의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역사학의 연구 경향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⁷⁵⁾ 역사학자들은 역사 자료를 해석해왔던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역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읽기, 두꺼운 의미의 층위를 캐내는 두 겹게 읽기, 기존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읽어보기, 작은 현실 사건을 읽어서 미시사(微示史)를 구성하기 등과 같은 방법을 개발해나가고 있다.⁷⁶⁾ 이를 대순사상 연구에 접목시켜 본다면 대순진리회의 수행을 문화현상과 접목시키기,⁷⁷⁾ 수행 그 이면에 있는 두꺼운 의미 층위를 캐내기, 젠더 문제 틀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해석해보기, 실제 수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수행의 진솔한 의미들을 추출하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껏 놓쳐왔던 숨은 정보들을 발굴해내게 하는 동시에, 보다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수행 연구를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상징 분석 작업에 있어서 유념할 사항은, 먼저 상징과 의미를 특정한 어떤 하나로 확정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술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7세기 중엽 당나라의 공영달(孔穎達)이 『오경정의(五經正義)』 170권을 편찬함으로써 오경(五經)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모범 답안’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유교는 고정된 틀에 정제되어 신유학(新儒學)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3~4백년 간 침체의 늪에 빠져있어야 했던 것

75) 일찍이 니니안 스마트는 역사의 시간적 측면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종교 연구에 있어서 역사학의 방법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니니안 스마트, 『종교와 세계관』, p.248.

76)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책세상, 2006) 참조.

77) 그 중의 하나가 수행 방법 중 하나인 해원상생을 해원상생곳이라는 문화현상과 접목시킨 것이다. 차선근, 「현대사회와 무속의례-해원상생곳의 출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2 (2013) 참조.

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징과 의미를 단 하나로 고착화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상의 계토화는 결국 그 종교를 쇠퇴의 길로 이끌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한 즉, 상징의 특징 중 하나가 다가성(多價性)이며,⁷⁸⁾ 다양한 맥락에서 각각의 차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⁷⁹⁾ 다음으로는 1990년대 이후 포스트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종교학이 각종 개념과 범주를 해체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순진리회 수행에 나타나는 여러 상징과 의미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그 분석에 사용되는 개념과 범주 장치에 대한 메타적 분석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⁰⁾ 쉽게 말해 물음에 대한 되물음, 분석에 대한 되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앞서 짧게 기술했듯이 ‘계율’ 개념이나 ‘수행’ 범주 설정을 문제 삼고 그것을 다시 분석하였던 것이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 분석은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본다.

셋째, 수행에 관련된 용어 및 개념 자체에 대한 천착이 더 필요하다. 대순진리회의 성경신이 유교의 성경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연구는 있어왔으나, 아직 일심, 진심, 정심, 수심연성, 세기연질, 취정, 개안, 무자기, 법수(法水),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⁸¹⁾ 등과 같은 용어나 개념이 동양 종교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왔는지, 또 대순진리회의 개념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조사·분석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순진리회 수행이 동양의 수행 전통 흐름 속에서 어

78) M. 엘리아데, 『종교, 신성, 예술』, 박규태 옮김 (서울: 서광사, 1991), pp.35-36 참조.

79) 심지어 상징이 남김없이 해석되었다면 그 상징의 생명은 죽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있다. 이부영, 『종교현상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종교학의 이해』, 김승혜 엮음 (철곡: 분도출판사, 2007), p.262 참조.

80) 김윤성, 「종교와 젠더 논의의 국면 전환과 전망-포스트구조주의와 탈식민주주의의 효과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8 (2006), pp.8-10 참조.

81) 『대순진리회요람』, p.9.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境地)를 정각(正覺)하고”, 같은 책, p.16.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境地)에서 심령(心靈)을 통일(統一)하여...”; 이 표현은 『옥추보경』에도 보인다. “道與道合眞 抑不知孰爲道孰爲我 但覺其道卽我我卽道 彼此相忘於無忘 可忘之中 此所謂至道也.” 『玉樞寶經』 「道以誠八章」 (보현사 판본, 1733), p.25.

디 즈음에 자리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넷째, 유사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탐구할 것을 강조하는 최근 비교종교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른 종교전통들의 수행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순진리회의 수행을 도교나 동학의 그것과 비교하고, 불교의 진언과 대순진리회의 주문을 비교하는 몇몇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 연구의 질적·양적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어느 학자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듯이 스스로를 본다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 법이다.⁸²⁾ 만약 도교의 주문 수행과 대순진리회의 주문 수행을 비교한다면, 도교는 내재적 관점을, 대순진리회는 초월적 관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주문 수행이지만, 그 형식이나 내용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밝힐 수 있게 되고 그로써 대순진리회 수행의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아울러 불교의 돈오점수(頓悟漸修)나 삼명육통(三明白通), 유교의 거경궁리(居敬窮理)와 대순진리회의 개안·도통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II장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대순진리회의 배례를 우보와 비교하는 작업도 대순진리회와 도교와의 관련성이라는 주제 속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다른 신종교의 수행들, 특히 다른 증산교단들의 수행과 비교하는 것 역시 대순진리회 수행의 특징을 추출해내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주문의 변천, 기도와 수련 등 각종 수행 의식이 정립되어 온 과정 등, 대순진리회의 수행이 자리를 잡아 온 지난 역사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야한다. 이 일은 대순진리회 수행의 역사를 글로 남긴다는 단순한 기록물 정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순진리회 수행의 고유성과 특징들의 변화 양상을 읽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82) “To see ourselves as others see us can be eye-opening.” Clifford Geertz,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1983), p.16.

IV. 닫는 글

이 글은 답보 상태에 있는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진단한 뒤 향후의 연구 과제를 세워보는 방식으로 수행 연구 맵을 작성해 보고자 한 것이다.

대순사상 연구 전반에 대한 최근의 유력한 특징 중 하나는 연구 인력의 양적인 확충이라 할 수 있다.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에 박사과정 이 개설된 지(2003년)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대순진리회 교리연구기관인 교무부·대순종교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⁸³⁾ 대순진리회 내부에서 현대 종교학을 습득한 연구자들이 점점 양성되어가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종단 외부의 국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2010년 『진경』 중문판 출판 이후 대순사상에 관심을 갖는 중국 도교학자들의 연구 참여 또한 점점 늘고 있고,⁸⁴⁾ 향후 대만, 일본 등 다른 외국 학자들도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심도 있고 다양한 문제의식 또한 개발되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종단 외부 연구자들이 종단 내부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고, 많은 선행 연구들을 모두 검토하여 종합한 후 실제적인 문제의식을 개발해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특히 중국이나 대만, 일본 학자들의

83)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현재와 미래」, pp.145-146.

84) 중국 도교학자들이 대순사상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이다. 이해 11월 8일에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진경』 중문판 출간 기념회가 열리면서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참여한 東亞道文化國際學術研討會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북경대 왕종위[王宗昱] 교수가 「学习《圣经》笔记」를, 중국 종교문화출판사 편집부 주임 휘커궁[霍克功] 박사가 「《圣经》阴阳与道教内丹阴阳比较研究」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 학회는 2014년까지 매년 북경대학교에서 열려왔으며, 그 동안 「大巡真理教五教合一思想与道教三教合一思想比较研究」(2011, 霍克功), 「关于《圣经》中所见的遁甲术」(2011, 裘梧) 등의 논문이 더 발표되었다. 또한 2013년 이후 다시 발간되기 시작한 『대순사상논총』에도 중국 학자들의 대순사상 관련 연구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경우는 언어 문제로 인하여 대순사상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접근하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지난 대순사상 연구들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이나 과제를 선정하는 일은 대순사상에 관심을 갖는 또는 갖게 될 연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 맵을 만드는 일은,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복된 연구를 피하게 하고 보다 넓고 깊은 연구를 유도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도를 담은 것으로서, 향후 대순사상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 『대순회보』 4, 1986.
- 『玉樞寶經』 「道以誠八章」, 보현사 판본, 1733.
-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4.
- 강돈구, 「종교심리학의 경향과 과제」, 『종교학연구』 10, 1991.
- _____, 「현대 종교이론의 쟁점」, 『종교학연구』 11, 1992.
- _____,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 _____,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종교연구』 73, 2013.
- 김방룡, 「남종선과 북종선의 관점에서 본 원불교의 마음과 수행법」, 『신종교연구』 26, 2006.
-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 종교교단 연구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김낙필, 「도교수행론에서의心和氣」, 『도교문화연구』 33, 2010.
- 김석한,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주체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5, 2001.
- 김영주,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 18, 2012.
- _____,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43, 2013.
- 김윤성, 「종교와 젠더 논의의 국면 전환과 전망-포스트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효과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8, 2006.
- 김의성, 「대순사상의 윤리관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정태,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포덕·교화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 1998.
- 김중서, 「현대 신종교 연구의 이론적 문제」, 철학·종교연구실 편집, 『현대 신종교의 이해』,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니니안 스마트,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옮김, 서울: 이학사, 2006.

-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대순진리회 연구위원회 편집, 『대순논집』,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 류성민, 「종교와 도덕의 관계-종교윤리학 방법론의 기초」, 『종교연구』 24, 2001.
- _____, 「천지공사'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3, 2014.
- 문화체육부 엮음,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서울: 화산문화, 1996.
- 박상규, 「대순진리회 조직의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엮음, 『한국 종교교단의 조직』, 광주: 한국학술정보, 2013.
- 박용철, 「도통진경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5, 1998.
- 박인규, 「한국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 주문의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 백경언, 「대순진리회 교화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신진식, 「내단학의 성명쌍수 사상의 현대적 의의」, 『도교문화연구』 27, 2007.
- M.엘리아데, 『종교, 신성, 예술』, 박규태 옮김, 서울: 서광사, 1991.
- 이부영, 「종교현상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종교학의 이해』 김승혜 엮음, 칠곡: 분도출판사, 2007.
- 장병길, 『증산종교사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6.
- 장병길, 『대순진리강화Ⅱ』,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 _____,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 정지윤, 「대순진리회 수행의 실제」, 『신종교연구』 30, 2014.
- 조용기,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조태룡, 「신인조화를 통해 본 수도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3, 1997.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책세상, 2006.
- 진정애, 「기성종교와 대순진리회의 심론 비교 연구」, 『대순회보』 72, 2007.
- _____,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 『대순회보』 91, 2009.

- 안영상, 「本然之性·氣質之性-인간성의 두 측면」, 한국사상사연구회 엮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 윤기봉, 「대순사상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7.
- _____, 「대순사상의 도통관에 있어서 실천수행의 문제」, 『종교교육학 연구』 38, 2012.
- 윤승용, 「신종교 의례의 현황과 특성」, 『한국종교』 23, 1998.
-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 연구』 8, 1999.
- 이경원,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8, 2000.
- _____, 「성·경·신과 대순수양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12, 2001.
- _____, 「대순진리회 기도의례의 종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19, 2008.
- _____,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20, 2009.
- _____,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대순사상논총』 20, 2009.
- _____,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이재호, 「대순진리회 수행의 이론과 실제」, 『신종교연구』 13, 2005.
- 정재식, 「학문과 신앙-두 영역의 만남」, 『인문과학』 54, 1985.
-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 『종교연구』 62, 2011.
- _____,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 『종교연구』 69, 2012.
- _____, 「대순진리회의 현재와 미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엮음, 『한국 종교의 확산 전략』,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2.
- _____, 「현대사회와 무속의례-해원상생곳의 출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2, 2013.
- _____,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서설(1)-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_____,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承負)와 척(慼)을 중심으로」, 『2014東亞道文化研討會』, 북경대학교 발표집, 2014.

한수진,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규범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Research Trends and Problems on Cultivation Practice of Daesoonjinrihoe

Seon-Keun Cha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This paper was carried out to bring the researches on Cultivation Practice of Daesoonjinrihoe which have been at a standstill after analyzing the directions of studies on Cultivation Practice and diagnosing its problems, in addition to that, the paper was also conducted in a way of discussing the research directions in the future. This work enables scholars who have interests in Daesoon Thoughts to easily comprehend over the length and breadth of Cultivation Practice of Daesoonjinrihoe as well as help them understand what level of researches regarding Cultivation Practice has been demanded. Furthermore, this paper will be a step-stone for scholars to ponder how and on what perspective they approach a wide variety of studies on Daesoon Thoughts.

The problems reflect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on Cultivation Practic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cept a few researches in general, problem recognition, research target, style, method, and content are not diverged from the frame defined by Jang Byeong-Gil, who set it up in Daesoon Religion and Thought

(Daesoon Jonggyo Sasang) in 1989. Proliferating overlapped researches without developing problem awareness is of great concern. And such researching climate has gradually set in. Secondly, there are numerous researches intending to reveal the researcher's forceful attitude implying faith. Thirdly,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neglect to focus on defining the range of researches. Fourthly, when defining concepts, more thorough insight is needed. Lastly, the researches on analysing symbols and attempting signification analysis are relatively few, only to find many error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o develop theories which back up Cultivation Practice by researching on the fields of theory of mind-nature(心性), theory of mind-qi(心氣), theory of pain, Religious Ethics, viewpoint of God/gods, and psychology. Secondly, all the symbols and meanings of elements shown in Cultivation Practice need analyzing more elaborately sophisticatedly and more in-depth. In order to fulfil this goal, by adapting the recent trends of historical studies, it is essential to attempt to engraft Cultivation Practice of Daesoonjinrihoe on cultural phenomena, to analyze thick layers of meanings beneath its surface, to interpret differently, utilizing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focusing on the gender problems, and to extract true meanings out of Cultivation Practice by analyzing everyday events which can occur in real cultivation practices. Thirdly, the terms and concepts regarding Cultivation Practice base the principle themselves. Fourthly, by utilizing methodology of comparative studies on religions, the comparative researches on cultivation practice of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are also needed. Lastly, the history of aspects on Cultivation Practice such as transition of mantras, processes which have been conducted

through proprieties of prayer and training should be collected and classified. In this context, this work is very important since it helps understand the aspects of transition of originality and characteristics in Cultivation Practice of Daesoonjinrihoe according to passage of time.

Key words : Cultivation Practice, history of research, research map, symbol, comparison, Beopbae(法拜: Four Sets of Bows), Tae-eul Mantra(太乙呪), mantra, meta analysis

◎ 투 고 일 : 2014년 10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12월 29일